

백두의 행군길 역세계 이어가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강산에 뜨겁게 차넘치며 경사스러운 2월, 온 나라 인민의 마음과 마음은 백두산밀영고향집으로 달려가고 있다.

하늘가에 높이 치솟아 빛나는 정일봉을 배경으로 하여 조백수의 유정한 물소리 들려오는 천고의 밀림속에 소중히 자리잡고있는 백두산 밀영고향집.

이 향집은 귀틀집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제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항일대전의 총포성을 자장가로 들으며 성장하셨다.

귀틀집은 비록 크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것을 새기여 주는 력사의 큰집인가.

이 고향집이 있어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빛나는 어제와 오늘도 있고 보다 휘황찬란한 메일도 있으나 언제나 백두산밀영고향집을 마음속에 소중히 안고 사는 이 나라 인민들이다.

민족자주위업계승의 피조물이 이어져온 이 고향집 프락에 주체108(2019)년 12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가슴 찡는 사연을 엮으셨다.

지금도 눈앞에 어리여 온다. 백제산의 군복차림을 방불케 하는 전투복차림의 장령들과 함께 백두의 전진들을 찾아 준마행군을 단행하신다면 그이 자랑로운 영상이.

백두밀영의 차디찬 눈부지우에 앉으시어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고 하 많은 사연안고 흐르는 조백수물결 우에 소중한 추억도 실어 보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밀영고향집프락에 가까이하시자 걸음을 멈추셨다.

동기와외부우에 백두의 하늘을 떠이고 오늘도 옛 모습 그대로 서있는 낫은 귀틀집.

장군님의 숨결이 따스한 훈풍이 되어 흐르고 어버이의 정깊은 체취가 서리꽃편이 갈솔향기에 가슴 물결 안겨

오는 고향집프락. 얼마나 그리우셨던 장군님의 고향집인가. 얼마나 와보고 싶으셨던 백두산밀영고향집인가.

성지의 한줄기 시냇물, 하나의 조약돌에도 수령님과 장군님의 뜨거운 숨결이 력력히 깃들여있었다. 갈다 고 절절히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총포성 울부짖는 항일의 전장에서 백제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백두의 눈보라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성장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의 절절한 념원과 기대를 안으시고 일찍부터 위대한 혁명가, 미래의 평등도시로서의 품격을 훌륭히 갖추어 나가시었다고 회회집이 추억하시는 그의 심중에는 장군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못건디게 갈마드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언제나 소중히 자리잡고있는것은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다. 현지지도의 멀고 험한 길에서도 늘 장군님을 생각하고 인민을 위한 훌륭한 창조물들이 태어날 때마다 우리 장군님께서 보시었다면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 하시며 조용히 눈을 감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이었다.

어버이장군님이 못건디게 그리울 때마다 그의 마음이 달려가곤 하신 곳은 백두산 밀영고향집이었다.

백두산에는 우리 장군님의 고향집이 있다고, 백두밀영고향집은 백두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을 지켜주고 구현해준 혁명의 고향집이라고 늘 말씀하곤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이었다.

하기에 잊을수 없는 12월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밀영고향집프락앞에 서서 이 자리에 서서 장 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의 길 걷어온 체취가 서리꽃편이 갈솔향기에 가슴 물결 안겨

을 때 그리우셨던 장군님에 대한 이 조선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시려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 그리고, 우리 혁명의 년봉마다 새겨져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 력사와 업적을 떠나 어찌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강화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있겠는가 가슴뜨거운 말씀을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혁명력사를 돌이켜보실 때마다 다 이렇듯 제일먼저 소중히 안아보곤 하시던 백두밀영고향집이 그의 지적에 있었다.

하지만 그리우셨던 고향집 프락앞에서 발걸음을 돌리시었다. 몇결음만 내걸으시면 백두산 밀영고향집프락에 들어서시련만, 몇결음만 더 옮기시면 귀틀집안에 정히 보존되어있는 장군님 어린시절 사용하시던 나무권총, 쪽무이지도 보실수 있으리만 그리우시는 어이하여 절연히 돌아 서시었다.

온 나라의 남너로소가 때 없이 찾아가고 스스럼없이 안기군 하는 고향집프락이건만 백두산밀영고향집을 그처럼 뜨겁게 가슴에 안고 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은 왜선뜻 들어가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시었다.

사실 그 누구보다 고향집 프락에 멍텅이 들어설수 있는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그의께서 장군님의 유힬을 꽃피우 이 나라, 이 인민을 위해 쌓아올리신 업적이 얼마나 특출하고 위대한 것인가.

공화국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놓으신 업적, 고난과 시련의 역풍이 불어오는 속에서도 인민을 이끄시어 이 땅우에 창조와 건설의 대전을 펼쳐주신 그 업적, 경애하는 원수님시대에 더

욱 굳어지신 일심단결의 위대한 힘...

조국과 인민을 위해 쌓으신 업적은 이처럼 하늘에 닿으리만 그리우시는 온 나라의 남너로소가 스스럼없이 안기군 하는 고향집프락에 선뜻 들 어 서 지 못 하 시 고 발 걸 을 돌 리 시 었 다. 떨 어 지 지 않 는 결 율 을 한 발 자 국, 또 한 발 자 국 옮 기 실 때 그의 심장에서 새차게 고동친것은 장군님의 애국뉘임, 장국군원을 기어 다 끌어드리고 고향집프락에 멍텅이 들어 서 리 라 는 불 라는 맹세였다.

정녕 크지 않아도 백두산 절세위인의 송고한 애국의 세기가 넘쳐흐르는 고향집 프락이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의 력사에는 고향집프락과 더불어 절세위인들의 애국애족의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이 전해지고있다.

만경대고향집! 일찍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14살 어린 나이에 나라 찾을 큰뜻을 품으시고 만경대사립문을 나서시어 성스러운 혁명의 길에 오르시었다. 그때 암록강을 건너시며 조선이 독립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짐신 수령님이시었다.

그렇게 혁명을 위해 떠나가신 만경대고향집프락에 장 장 20년세월 피어린 혈전을 벌려 나라를 찾아주시고 조국에 돌아오시어 먼저 찾으신 것이 아니라 새 조국건설을 위해 강선의 노동동계군부 터 찾아가신 가슴찌는 사연을 오늘날도 만경대갈림길은 길이 전하고있다.

백두산밀영고향집! 이 력사의 집에는 또 얼마나 숭엄한 력사의 화룡이 새겨져있는 것인가.

선군의 총대로 나라의 운명과 인민의 자주적존엄을 지켜주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며 장군님 찾으시였던 백두산 밀영고향집.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집보다 더 소중하고 추억에 남는 집은 없다고 한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있어서 고향집추억은 그 누구보다 더 강렬하고 남달리 예뻐한 것이었다. 그 추억은 백제산의 총성을 자장가로 들으시던 옛 뜻을 그날에 대한 추억이었고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한 눈물겨운 추억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고향집앞에서 부디 독사진을 남겨주시었으면 하는 일군들의 간절한 청에 장군님께서 어떻게 말씀 하시었다.

나는 아직 수령님과 어머니의 념원을 다 풀어드리지 못 하 였 다. 우리 에 게 는 혁 명 을 위 해, 인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우리 인민들이 모두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될 때에 가서 기쁜 마음으로 사진을 찍겠다. ...

이처럼 고향집프락과 더불어 념원을 다 풀어드리지 못 하 였 다. 우리 에 게 는 혁 명 을 위 해, 인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우리 인민들이 모두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될 때에 가서 기쁜 마음으로 사진을 찍겠다. ...

이처럼 고향집프락과 더불어 념원을 다 풀어드리지 못 하 였 다. 우리 에 게 는 혁 명 을 위 해, 인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우리 인민들이 모두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될 때에 가서 기쁜 마음으로 사진을 찍겠다. ...

이처럼 고향집프락과 더불어 념원을 다 풀어드리지 못 하 였 다. 우리 에 게 는 혁 명 을 위 해, 인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우리 인민들이 모두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될 때에 가서 기쁜 마음으로 사진을 찍겠다. ...

이처럼 고향집프락과 더불어 념원을 다 풀어드리지 못 하 였 다. 우리 에 게 는 혁 명 을 위 해, 인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우리 인민들이 모두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될 때에 가서 기쁜 마음으로 사진을 찍겠다. ...

이처럼 고향집프락과 더불어 념원을 다 풀어드리지 못 하 였 다. 우리 에 게 는 혁 명 을 위 해, 인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우리 인민들이 모두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될 때에 가서 기쁜 마음으로 사진을 찍겠다. ...

이처럼 고향집프락과 더불어 념원을 다 풀어드리지 못 하 였 다. 우리 에 게 는 혁 명 을 위 해, 인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우리 인민들이 모두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될 때에 가서 기쁜 마음으로 사진을 찍겠다. ...

모습 그대로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조국 땅 한끝까지, 서해열점지역의 섬초소들까지 찾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이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시며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아주시고 인민이 주인된 기쁨과 행복의 세세상을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다.

백두산 절세위인들께서 세대와 세기를 이어 바쳐 가시는 애민헌신의 삶은 이 땅우에 인민이 세상에 부럼 없이 사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해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에 력사의 광풍에도 끄떡없이 새겨져있는 진리의 길, 신념의 길,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걸어오신 애국의 길, 백두의 행군길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따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철석의 믿음과 의지를 안고 공화국인민들은 모두가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로의 행군길을 이어가며 류레없이 간고하였던 지난해에 전화위부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그리고 새해 2021년의 첫아침부터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혁명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험한 대진군을 벌리고있다.

백두산 절세위인들께서 애신 신념의 자양분으로 안겨 주신 백두의 혁명정신이 온 나라에 차넘치고 새로운 혁신과 기적의 불바람이 백두의 칼바람마냥 세차게 불어치고있다.

백송의 기치인 이념위칭,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공화국은 더욱 힘찬 투쟁을 벌려 세계를 보란듯이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게 될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백두의 행군길을 역세계 이어나가는 조선의 앞길에는 승리의 밝은 지평이 열려져있다.

2020년 2월 촬영



인민생활향상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한평생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강그리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풍족하며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겠는가 하는 일념이 짙차있었다.

그이께서는 인민생활을 끊임 없이 높이는것을 조선로동당과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변함없이 내세우시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당들도 많지만 공화국에서와 같이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평범한 날에나 준엄한 시련의 나날에나 인민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대의 힘을 기울여온 당과 국가가 없다.

당과 국가가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애민헌신의 령도는 가장 어려웠던 지난 세기말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뜨겁게 새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방의 어느 한 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공장에 도착하신 그이께서 돌아보시는 생산현장에서는 한창 무리들을 조립하고있었다.

생산자들의 작업모습을 눈여겨보시던 어버이장군님께서 는 자못 기쁜 표정을 지으시며 이 공장은 무리들을 잘 만든다는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확실히 무리들을 만드는 데서 전통이 있다고, 그래서 자신께서는 무리들 하면 이 공장부터 생각한다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조립중에 있는 무리들 한계를 손수 드시고 이 무리들은 어디에 쓰는지 알고있는가고 일군들에게 물으시었다.

일군들이 잠시 망설이고있을 때 그이께서는 한 일군을 바라보시며 어서 설명해 주라고 하시었다.

그 일군이 이 무리들은 농촌문화주택에 달아주려고 얼마전부터 생산하고있는 가정용 무리들인데 벌써 도안의 여러 협동농장문화주택들에서 사용하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가정용 무리들을 만들어 농촌문화주택에 달아주면 농민들이 아주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바로 전기로 짓고 난방도 전기로 하고 거기에 무리들까지 달아놓으면 우리의 농촌은 더 살기 좋아질것이라고 하시었다.

이처럼 인민생활문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었다. 무로의무교육, 무상치료제

를 비롯한 인민적시책들이 일관성있게 실시되었고 수많은 현대적인 경영업생산기지와 가금생산기지를, 기초식품생산기지를 건설하는데 막대한 국가적투자가 돌려지게 되었으며 인민을 위한 명승지와 문화휴양지, 국장과 영화관, 금양봉사기지가 훌륭히 꾸러졌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원 원수님의 세련된 령도밑에 더욱 철저히 구현되고있다.

인민을 위해 떠안은 고민을 더없는 무상의 영광으로 받아안고 인민을 위해 한몫을 강그리 불태우도록 일군들을 깨우쳐주고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꿈과 이상이 날이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는 것이다.

인민을 위해 떠안은 고민을 더없는 무상의 영광으로 받아안고 인민을 위해 한몫을 강그리 불태우도록 일군들을 깨우쳐주고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꿈과 이상이 날이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는 것이다.

인민을 위해 떠안은 고민을 더없는 무상의 영광으로 받아안고 인민을 위해 한몫을 강그리 불태우도록 일군들을 깨우쳐주고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꿈과 이상이 날이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는 것이다.

인민을 위해 떠안은 고민을 더없는 무상의 영광으로 받아안고 인민을 위해 한몫을 강그리 불태우도록 일군들을 깨우쳐주고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꿈과 이상이 날이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는 것이다.

인민을 위해 떠안은 고민을 더없는 무상의 영광으로 받아안고 인민을 위해 한몫을 강그리 불태우도록 일군들을 깨우쳐주고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꿈과 이상이 날이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는 것이다.

인민을 위해 떠안은 고민을 더없는 무상의 영광으로 받아안고 인민을 위해 한몫을 강그리 불태우도록 일군들을 깨우쳐주고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꿈과 이상이 날이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는 것이다.

인민을 위해 떠안은 고민을 더없는 무상의 영광으로 받아안고 인민을 위해 한몫을 강그리 불태우도록 일군들을 깨우쳐주고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꿈과 이상이 날이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는 것이다.

시 소원

유현의
 뵈고싶어 어버이를 뵈고싶어
 꽃을 안고 오른 만수대 언덕
 늘길 들어 우리라면
 숭엄한 언덕 그리움의 이 언덕우에
 야전숨웃 입으시고 서계시는 장군님
 바람에 야전숨웃자락 날리시는
 장군님은 환하게 웃으시건만
 그이의 야전숨웃 바라보는
 이 눈가에 뜨겁게 고이는것이며
 가슴은 왜 이따로 쓰러오는것인가
 세월의 찬눈비에 젖고졌던 숨웃
 가셔야 할 길 멀고도 멀어
 언젠 한 번 말릴새 없었던 그 숨웃

너무도 앓아져 추위가 스며드는줄은
 저저마다 부여잡던 그 팔소매가
 다 다슬렀음을 왜 그때 다는 몰랐던지
 간절합니다 소원입니다
 언제나 여기 만수대 언덕우엔
 세월을 당겨 따스한 봄바람 불어
 왔으면
 우리 위해 한생토록 찬 눈을 맞으신
 장군님
 만발한 꽃속에 그옥한 향기속에
 어버이장군님 계시셨으면
 가슴에 넘치는 이 진정
 우리 장군님 영원한 봄날에 모시고
 기쁨만을 웃음만을 드리고싶어
 그리움만 불타는것 아닙니다
 우리 소원 더 붉게 타는 만수대 언덕
 입니다

시 사적에 대한 추억

김송림
 그리도 굳이 사양하시었던가
 한장 또 한장
 하 많은 사연 더듬어 번져보노라면
 그처럼 정을 다해 품들어 가귀오신
 이 나라 산천이 다 어리어있고
 혈육의 정을 나눈 인민의 모습 다
 있건만
 여기 백두산밀영고향집
 자신의 생가앞에서만은
 한장의 사진도 남기지 않으신 장군님
 누구에게나 있는 고향집기념사진이
 아, 우리 장군님께만은 없으셨나니
 어릴 가나 인민이 아뢰이는 진정
 그이와 함께 사진을 찍고싶다는
 무람없는 청은 가까이 들켜주셨건만
 어이하여 고향집앞에서만은
 한장의 사진마저 남기지

자신의 한생 인민을 위한것으로 정하
 셧기에
 인민의 존엄과 행복을 꽃피우기 전
 에는
 고향집프락에 멍텅이 서지 않으리라
 곧은 맹세 품고 나서신 우리 장군님
 비록 백두의 고향집앞에서
 사진 한장 남기지 못하셨어도
 그날의 위대한 맹세를 인민이 알고
 고향집프락에 서계시던 그 모습은
 인민의 가슴에 깊이깊이 새겨져있거
 니
 위인의 용기가 력력히 살아숨쉬는
 혁명의 성지 백두산밀영고향집에서
 우리는 보노라 어버이의 그 모습을
 백두의 붉은기 높이 휘날리시며
 승리와 영광에 놀라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영원한 주체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을

【대단한 마음의 마음을 담아】
수정공예 《정일봉이 솟아오른 백두광명성》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주체106(2017)년 2월 나이제리아부총리보당 전국위원장님이 삼가 올린 선물이다.

그는 자신이 끊임없는 기적을 창조하며 힘차게 전진할수 있는것은 김정일각하께서 생전에 자립적경제로 대를 보다 튼튼히 꾸러놓으시였기때 문이라고 하면서 그이의 선견지명과 비범한 령도력에 찬탄을 금치 못해 하였다.

하여 그는 자신이 직접 선물도안을 착상하고 이룬바 제작자들의 긴밀한 령계밑에 가공, 완성하여 수정공예 《정일봉이 솟아오른 백두광명성》을 마련하였다.

밑단에 백두의 울창한 수림속에 솟아 있는 정일봉의 장엄한 모습이 새겨지고 그 우에 찬란한 빛을 뿌리며 떠오르는 별이 금빛으로 형성된 선물은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라는 뜻을 담고있다.

본사기자

